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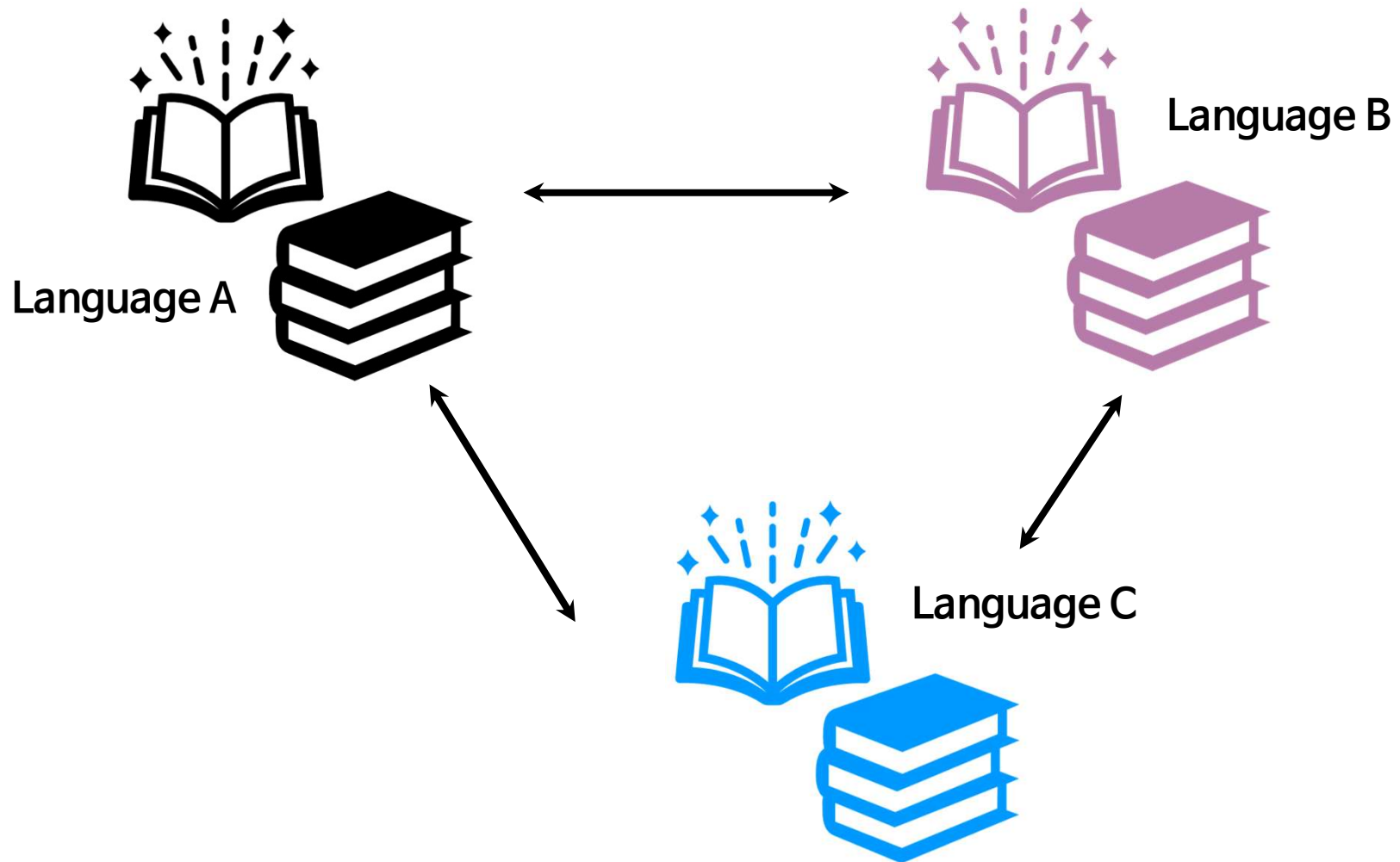
디지털시대의 고전 번역 I

Translation of Classics in the Digital Environment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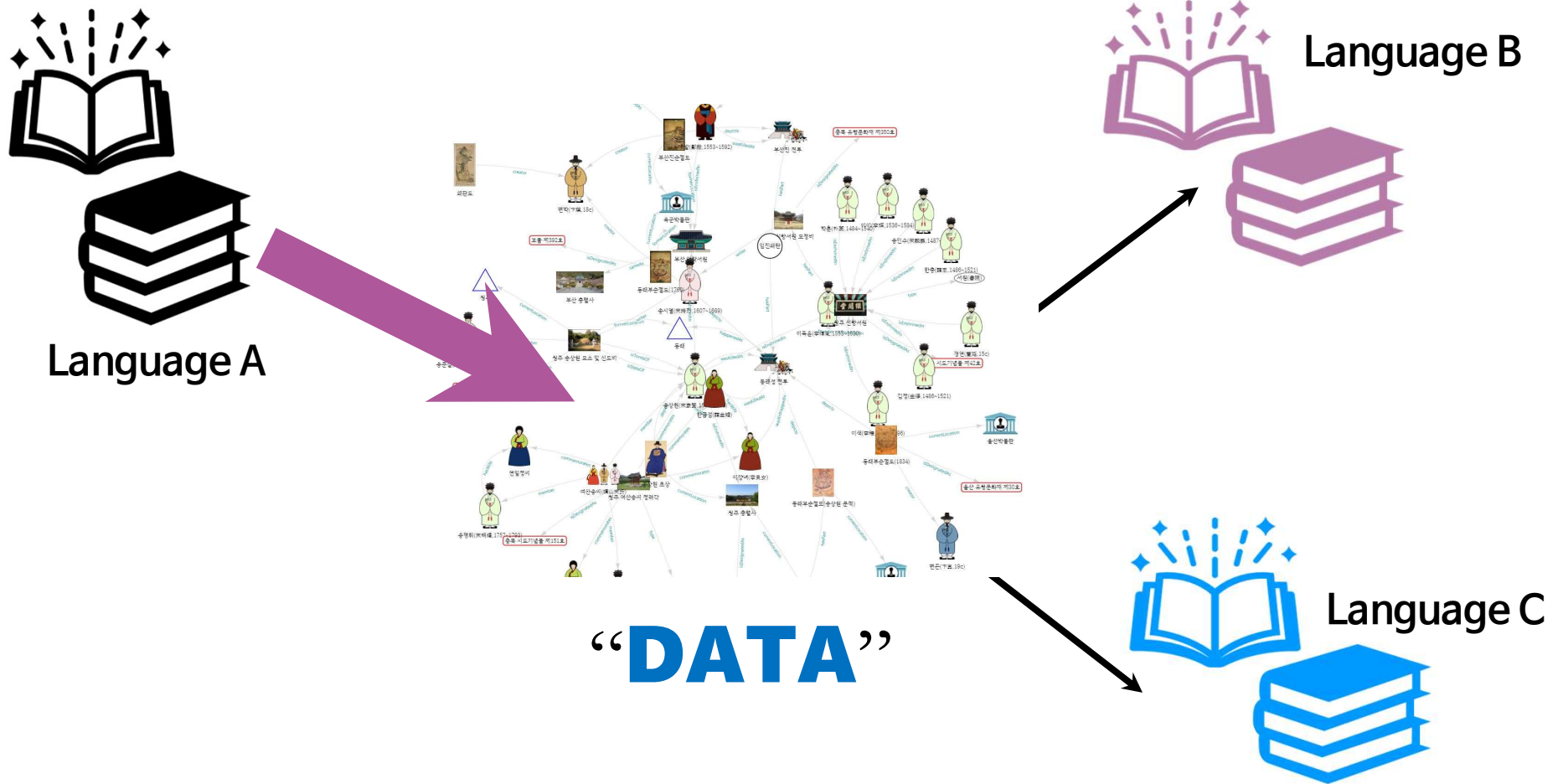
강의 소개 Introduction

-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재 안내 문안을 쓰고 번역하는 방법
- 인문지식을 체계적인 데이터로 기술하는 방법
-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하는 공공번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강의 소개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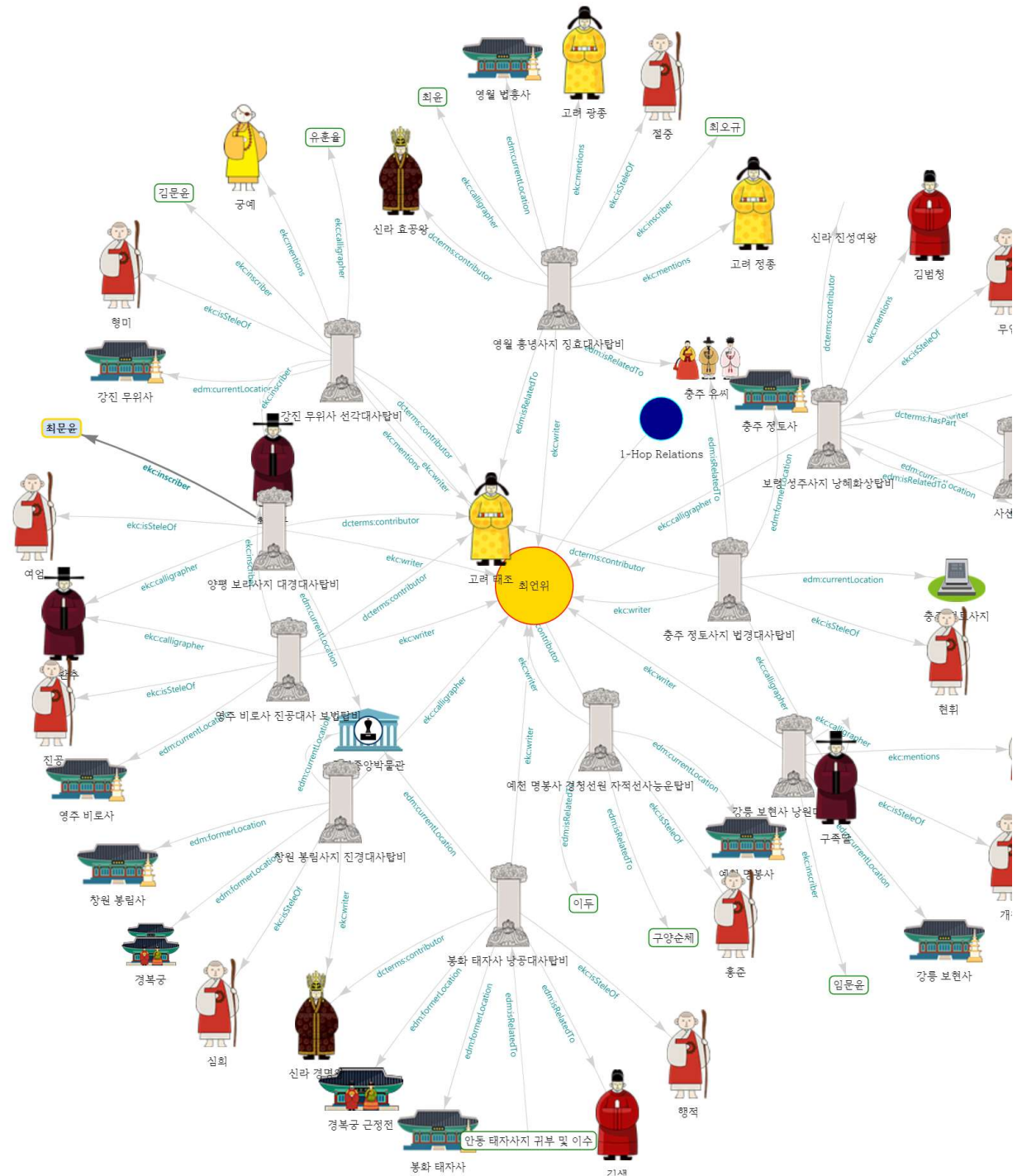


강의 소개 Introduction



Data Compilation Example

- “최언위“, 한국 기록유산 Encyves
<http://dh.aks.ac.kr/Encyves/wiki/index.php/최언위>
- <http://dh.aks.ac.kr/~tutor/cgi-bin/bhNet/bhNetStory02.py?최언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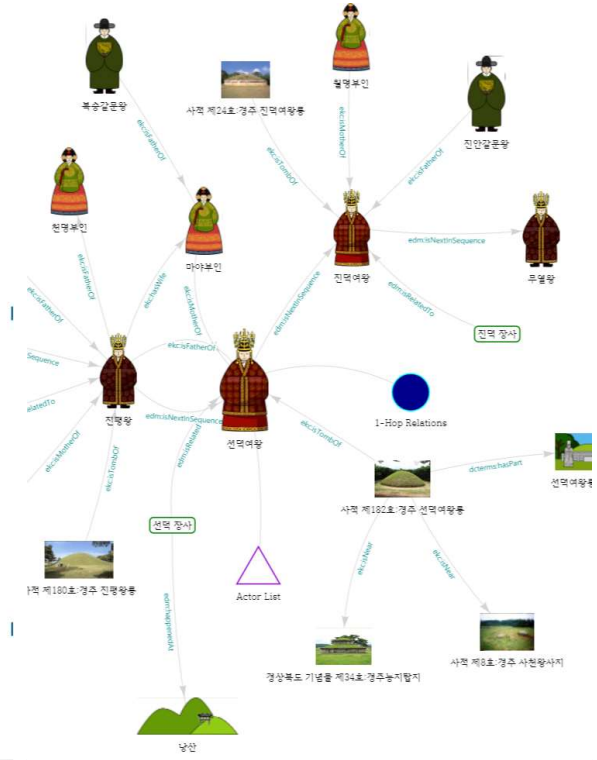




Korean Cultural Heritage



Wiki Website



Network Graph

DATA-BASED CULTURAL HERITAGE EXPLAINATION

공공번역 Public Translation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이루어져
일반 대중에게 공개, 사용되는 번역’

1. 정부차원의 공문서로서 안전행정부 분류상 ‘제1범주의 상징적 문건’에 해당하는 문서
2. 정부차원의 공문서로서 안전행정부 분류상 ‘제2범주의 실제업무수행을 위한 공문서’에 해당하는 문서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미 홍보 인쇄물과 같은 공공기관 정보
4. 다양한 지역과 지방자치기관의 관광 안내 정보
5. 주요 유·무형 문화재나 주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현판 등과 같은 문화유산 정보
6. 도로 표지판 및 관광지 교통안내 등과 같은 생활 정보
7. 한국학 연구를 위해 필요한 개념 용어 및 인물 정보
8. 한식이나 한국식 생활관습에 대한 정보
9. ‘한류’ 또는 ‘K-POP’으로 대표되는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

문화재 안내 AS-IS

■ 침류각(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03호)



침류각(시도유형문화재 제103호)

세벌대기단, 굴도리집, 겹처마, 팔작지붕, 오량가구,
불발기를 두고 있고 상하에 띠살, 교살, 딱지소, 굴도리……
혹시 도 장관님, 뜻을 한 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런 것이 전통가옥 연구자들에게는 관심사일지 몰라도
일반 국민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궁금증은

‘이게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을까? 언제? 왜?’

이게 지금 청와대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안내판에) 한 마디도 없습니다.

2018년 5월 29일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말씀

문화재 안내 문안 작성 사례



대표명칭	성주 응와종택
영문명칭	Eungwa Head House, Seongju
한자	星州 凝窩宗宅
지정번호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44호
지정일	1983년 6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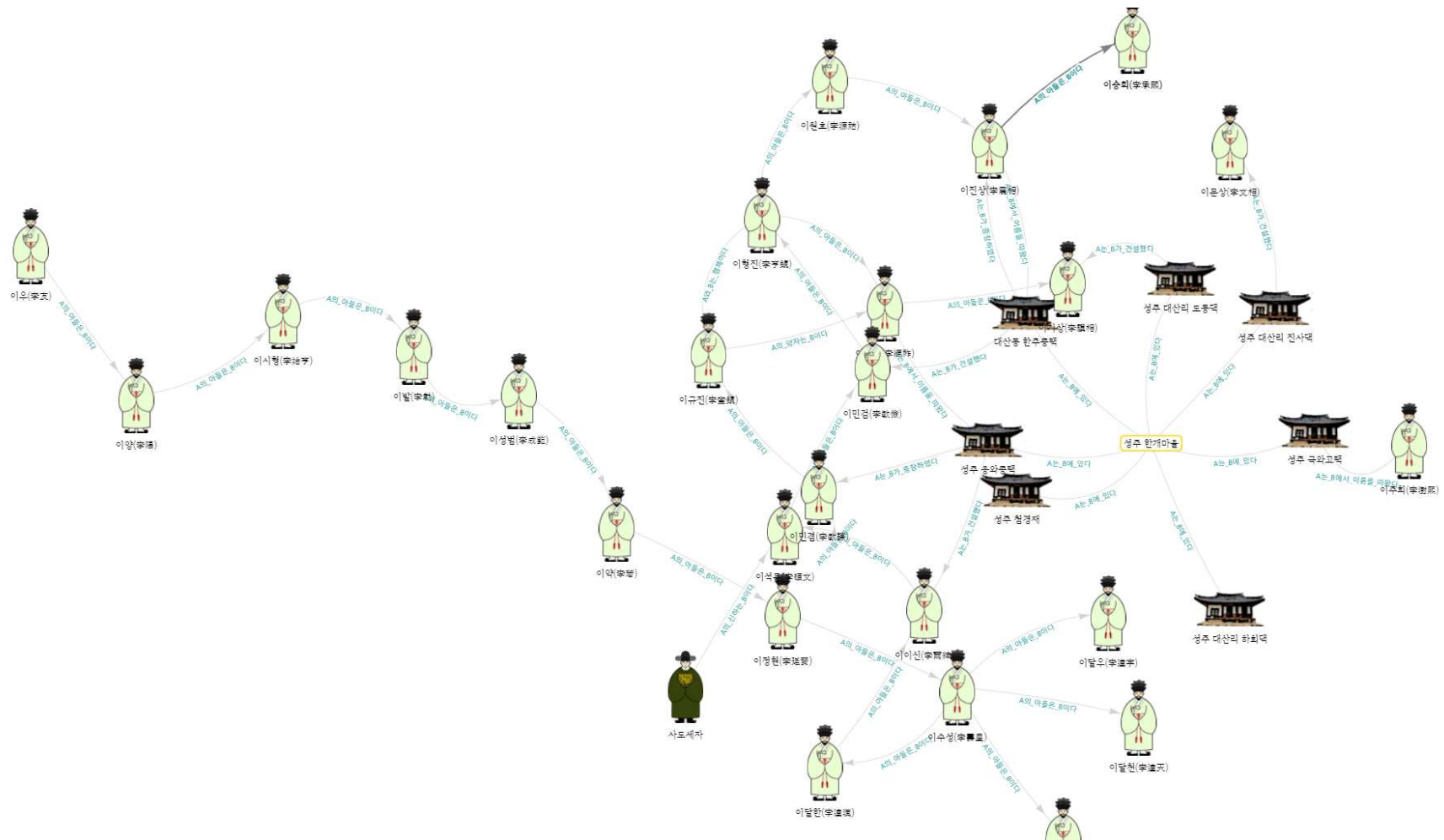
국문 문안

응와종택은 조선 경종 1년(1721) 이이신이 터를 잡고 이이신의 손자인 이민겸이 규모를 늘렸다. 여러 차례 고쳤으며 1910년에 사당을 덧붙여 늘려 지었다. 2010년 이후 자혜당, 부속채, 화장실 등을 새로 만들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안채, 사랑채, 사당, 북비채, 행랑채 등 모두 9동으로 이루어졌다. 응와종택이라는 이름은 사랑채를 완성한 응와 이원조(李源祚)의 호에서 따왔다.

이석문은 영조 15년(1739)에 무과에 급제하여 사도세자를 곁에서 보호하고 지켰다. 영조 38년(1762)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려 하자 이석문은 세손을 등에 업고 말리는 수문장을 밀치고 들어가 세손이 영조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게 하였다. 이 일로 이석문은 관직을 빼앗기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뒤 영조가 다시 벼슬할 것을 명하였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고 대문을 북쪽으로 돌려내고 사도세자를 그리워하였다. 그의 손자인 이규진이 정조 7년(1783) 과거에 합격하자, 정조는 이규진을 특별히 불러 “너의 조부가 세운 공이 가상하다.”하고, 또 “북쪽 대문이 아직도 있는가?”라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문화재 안내 문안 작성 사례



http://dh.aks.ac.kr/~heritage/wiki/index.php/성주_한개마을

문화재 안내 문안 작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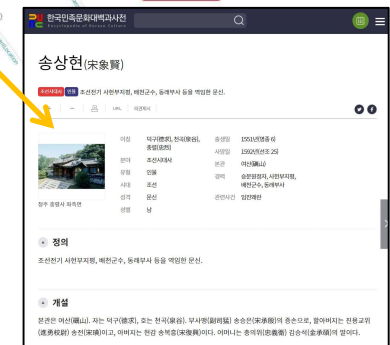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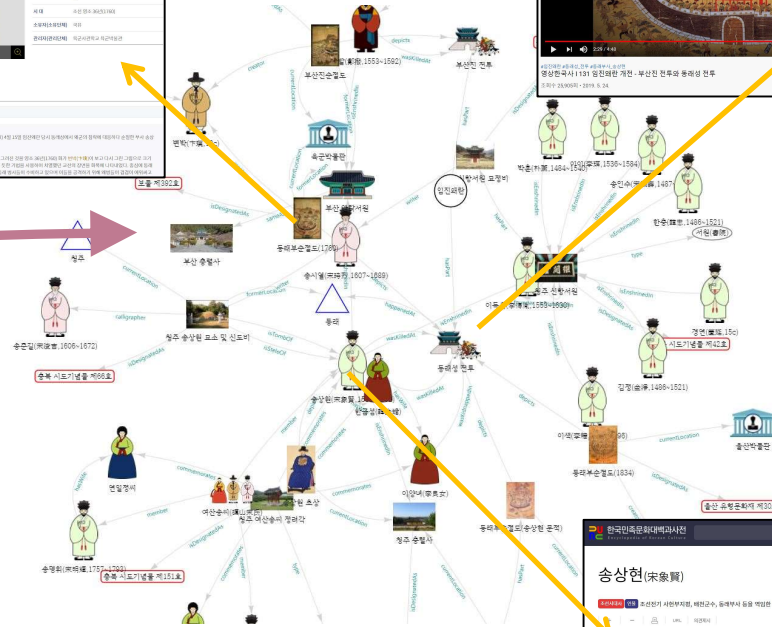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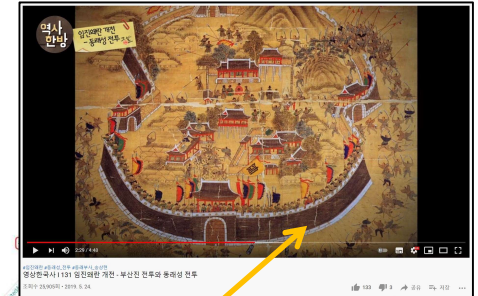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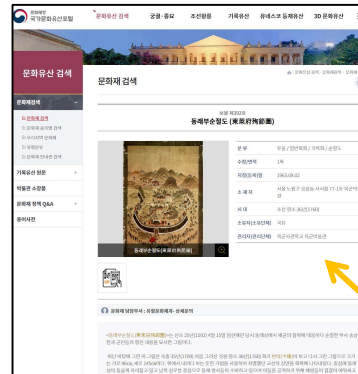
영문 문안

http://dh.aks.ac.kr/~heritage/wiki/index.php/성주_응와종택

Eungwa Head House, Seongju

This is the site of the house where Yi U, the first person of the Seongsan Yi Clan to move to this village, had lived. In 1721, Yi U's 9th-generation descendant, Yi I-sin (1689-1744), obtained the property and established a head house. A head house is a residence passed down by the male successors of a family lineage. The main buildings of the property were rebuilt by Yi I-sin's great-grandson Yi Gyu-jin (1763-1822), and the house later underwent several repairs. In the 2010s, several auxiliary buildings were added to the complex. The house now consists of nine buildings including a men's quarters, women's quarters, and shrine. The name Eungwa was the pen name of Yi Gyu-jin's son, Yi Won-jo (1792-1871). The house is also known as Bukbi House, meaning "the house that faces north." This name is related to Yi Seok-mun (1713-1773), the son of Yi I-sin and the grandfather of Yi Gyu-jin. After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for military officials in 1739, Yi Seok-mun was placed in charge of protecting Crown Prince Sado (1735-1762). In 1762, the crown prince's father, King Yeongjo (r. 1724-1776), had his son's title removed and ordered that he be locked in a rice chest on account of his misconduct. During this incident, Yi Seok-mun carried the crown prince's young son (later King Jeongjo, b. 1752, r. 1776-1800) on his back and pushed past royal guards into the throne hall so that the boy could plead in tears to his grandfather to spare his father's life. Because of this action, Yi Seok-mun was removed from office and returned to his hometown. In 1774, he had the main gate to his house face north, which is an unconventional direction, in order to be oriented toward the royal palace in longing for Crown Prince Sado. It is said that when his grandson Yi Gyu-jin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in 1783, King Jeongjo specially called upon Yi Gyu-jin to commend his grandfather's service and inquired if the main gate of their family house still faced north.

문화재 안내 TO-BE



문화재 안내 TO-BE

